資料

페르샤湾 事態와 国際石油市場 動向

—韓国産業経済技術研究院—

지난 80년 9월 開戦이후 45개월째로 접어든 이란·이라크戦争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라크가 이란의 石油輸出基地인 하르그(Kharg)섬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란이 쿠웨이트, 사우디 등의 유조선을 잇달아 공격하는 등 지난 週에만도 무려 8척의 선박이 피격되었다.

이처럼 이란·이라크戦争이 両国의 페르샤아湾内 선박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라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페르샤湾 일대의 石油輸送에 커다란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国際石油需給 및 油価에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대부분의 石油専門家들은 이번 사태가 페르샤湾을 통한 石油輸送의 완전두절이나 호르무즈 海峡의 봉쇄같은 극단적인 사태로 진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설사 이러한 극한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長期化될 가능성은 적어 그 영향은 지난 1, 2차 석유파동처럼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油価가 급등하거나 이러한 사태가 長期化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지역의 原油에 크게 依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現物価格의 상승

이라크가 이란의 最大石油輸出基地인 하르그섬을 출입하는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전투기들이 지난 5월 14일 쿠웨이트 유조선을 공습한 데 이어 16일에는 사우디의 대형 유조선을 공격, 이란 : 이라크戦争은 페르샤湾 일대의 제3국 선박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라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세계의 石油需給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国際石油市場의 現物油価에 즉각 영향을 미쳐, 정세변화에 가장 민감한 英国 北海産 브렌트(Brent)油의 경우 現物価格이 배럴당 지난 15일의 29.75달러에서 하루만에 30.70달러로 상승,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시세를 기록하였다. 또 美国의 代表油種인 西部텍사스産 中質油(WTI)도 現物価格이 16일에는 배럴당 31달러까지 상승 公示価를 1달러나 상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急騰勢는 그후 다소 누그러져 21일에는 브렌트油는 배럴당 30달러로, 西部텍사스産 中質油는 30.75달러로 진정되었다. 한편 OPEC의 基準原油인 사우디産 軽質油의 경우는 배럴당 불과 10센트의 상승에 그쳤다.

이와 같은 이란과 이라크 両国의 제3국 선박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무엇보다도 페르샤湾 일대의 原油輸送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페르샤湾 사태가 악화되면서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ritish Petroleum), 로얄 더치 쉘(Royal Dutch/Shell), 스탠다드 오일(Standard Oil)등 주요 西方 石油会社들은 페르샤湾 北端에서의 石油船積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日本의 쇼와(昭和), 마루젠

(丸善) 石油 등은 対이란 유조선 配船을 취소하고 他中東産油国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 이후 페르샤湾을 통과하는 유조선의 수는 平時보다 10~1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런던의 로이드保險業者協議会는 페르샤湾을 항해하는 선박의 船体保險料率을 5월 17일부터 종전의 0.075%에서 0.25%로 3배 이상, 貨物保險料率도 0.0275%에서0.05%로 2배 가량 인상하였으며, 특히 戰爭海域인 경우에는 船体保險料率을 2%에서 3%로, 貨物保險料率을 0.5%에서 3%로 인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극단적인 事態는 없을듯

이처럼 페르샤湾에서의 유조선 공격사태는 原油輸送의 차질, 油価의 동요, 보험료의 인상 등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으나, 이번 사태가 페르샤湾内의 전면적인 通行不能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같은 극단적인 사태로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러한 사태가 이란에게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이라크를 지원하고 있는 사우디, 쿠웨이트 등 페르샤湾岸 아랍産油国들에게도 큰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란의 경우 호르무즈해협의 봉쇄 또는 拡戰에 따른 페르샤湾内의 실제적 通行不能事態는 自国의 石油輸出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식량, 전쟁물자 등의 輸入마저 거의 두절된다는 것을 뜻하게 되므로 그 피해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만일의 경우 이란에 의해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美国을 비롯한 西方強大国들의 강력한 대응이 예상되고,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완전 봉쇄하거나 여타 수단으로 石油수송을 완전히 단절시킬 능력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러한 극한사태가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石油輸送 막혀도 영향은 크지 않아

또한 설사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거나 유조선에 대한 空襲의 확대로 페르샤湾의 石油輸送이 실질적으로 단절되는 사태에 이르더라도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그 영향도 1, 2차 石油波動처럼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전망되는 근거로는 이러한 사태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自由世界 石油供給의 19%에 달하는 하루 800만 배럴 정도의 石油供給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1) 他産油国들의 増産으로

〈表-1〉 페르샤湾内 통행이 두절되는 경우 自由世界의 石油供給減少

(單位 : 百萬B/D)

	83.4/4 産油量	國内消費[1]	페르샤湾内통행두절에따른供給減少	生産能力	増産可能量
사우디	5.5	1.4	4.1	11.0	1.2[2]
이란	2.5	0.6	1.9	3.0	0.0
이라크	1.1	1.1	0.0	1.5	0.0
쿠웨이트	0.9	0.2	0.7	2.5	0.0
UAE	1.2	0.1	1.1	2.9	0.0
카타르	0.3	0.0	0.3	0.7	0.0
中立地帶	0.6	0.0	0.6	0.6	0.0
에콰도르	0.2	—	0.0	0.3	0.1
베네수엘라	1.7	—	0.0	2.5	0.8
인도네시아	1.4	—	0.0	1.6	0.2
알제리	0.7	—	0.0	1.1	0.4
가봉	0.2	—	0.0	0.2	0.0
리비아	1.1	—	0.0	2.0	0.9
나이지리아	1.3	—	0.0	2.4	1.1
非OPEC	26.4	42.0	0.0	—	0.5
合計	46.3	45.3	8.8	—	5.2
増産可能量·天然가스供給減少			5.2 0.6		
實際供給減少			4.2		

註 : 1) 사우디와 이라크의 國内消費에는 紅海 및 地中海로 연결된 送油管을 통한 石油輸出도 포함.

2) 紅海로 연결된 송유관의 最大送油能力은 하루 185만 배럴이나 현재는 60만배럴만이 이 送油管을 통해 수출되고 있음.

〈資料〉 IEA, Oil Market Report, Feb. 1984.
PIW,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Jan. 16. 1984.
Petroleum Information Corporation, Petroleum Information International. Jan. 30, 1984.

하루 500만 배럴 정도의 추가공급이 가능하고, 2 이 경우 실제 공급부족은 300만 배럴 정도가 되나

〈表－2〉 페르샤湾內 통행이 두절되는 경우의 分期別 自由世界의 石油供給不足

(單位：百萬B/D)

	1984				
	1/4	2/4	3/4	4/4	年平均
石油需要(A)	46.7	44.0	43.8	45.6	45.1
83年 4/4分期生産水準유지할경우의 産油量 (B)	36.9	36.9	36.9	36.9	36.9
생산시설을 최대로 稼動한 産油量 (C)	42.1	42.1	42.1	42.1	42.1
石油供給不足 (A－B)	9.8	7.1	6.9	8.7	8.2
(A－C)	4.6	1.9	1.7	3.5	3.0

〈資料〉〈表－1〉과 同一.

사우디의 備蓄油 6,000만 배럴이 방출되면 20일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③ 이 정도의 기간이면 西方諸国 또는 隣近아랍国家들의 軍事的, 外交的 노력에 의해 페르샤湾內의 石油輸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4 1, 2次 石油波動 때와는 달리 自由世界가 전체 석유소비량의 약 90일분에 해당되는 40억 배럴 이상의 在庫油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1]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石油価格은 이러한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되느냐 또는 石油消費国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에 대처하느냐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石油問題 專門家들은 油価가 일단 현재의 배럴당 30달러에서 40달러 台로 急騰하였다가 2～3週內에 他産油国들의 緊急增産으로 30달러 台 또는 그 이하로 다시 하락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적인 불안에 따른 仮需要의 급증으로 石油価格이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이란이 紅海로 연결되는 사우디의 送油管과 터어키를 경유하여 地中海로 연결되는 이라크의 送油管까지 파괴하면 自由世界로의 石油供給이 하루 1,080만 배럴이나 줄어들어 油価가 暴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2]

최근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先進各国들은 비상대책 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美国은 国際石油供給이 크게 감소되면 心理的 不安感에 따른 仮需要를 억제하고 油価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戰略備蓄石油[3]를 조기에 방출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며, 최근에는 美国, 유럽, 日本을 잇는 緊急石油融通計劃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다음달 런던에서 열리는 先進7個国 頂上会談에서는 최근 페르샤湾 사태에 대한 대응책과 危機管理制度(EMS：Emergency Management System)[4]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송중인 原油를 제외하고도 数個月分의 原油 및 石油製品을 在庫로 보유하고 있어 페르샤湾의 石油供給이 전면 중단되어도 사태가 단기간에 그치면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石油輸入의 対中東依存度가 67%에 달하고 있어 안정적인 石油供給을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만일의 경우 사태가 장기화되면 큰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란·이라크戰爭의 추이를 예의주시하여 예상되는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응책으로는 첫째, 증산이 가능한 産油国들로부터 필요한 量을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하

註：1) 현재 각국의 在庫保有는 美國이 90日分, 日本 120日分, 프랑스 99日分, 英國 76日分 등임.

註：2) 와튼計量經濟研究所는 이 경우 石油價格이 6週 이내에 배럴당 10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註：3) 美國의 戰略備蓄石油는 약 4억배럴로서 最大放出能力은 하루 210만배럴, 計劃放出量은 하루 170만배럴이며 放出方法은 競賣에 의함.

註：4) 國際에너지機構(IEA)의 危機管理制度에 따르면, IEA加盟國 全体石油消費의 7% 이상의 石油供給不足이 3개월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IEA加盟國들은 石油消費를 10% 줄이고 在庫를 방출하도록 되어 있음.

〈表－3〉 우리나라의 導入国別 原油導入実績

(單位：千배럴, %)

區 分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中 東)	166,532 (100)	184,345 (99.4)	178,057 (97.4)	161,210 (88.2)	135,062 (75.7)	142,881 (74.0)
사 우 디	95,840 (57.6)	98,865 (53.3)	109,557 (59.9)	104,914 (57.4)	89,454 (50.1)	58,876 (30.5)
쿠 웨 이 트	50,789 (30.5)	58,874 (31.7)	49,140 (26.9)	38,753 (21.2)	21,329 (12.0)	20,749 (10.8)
이 란	12,912 (7.7)	19,809 (10.7)	15,515 (8.5)	14,496 (7.9)	21,111 (11.8)	31,415 (16.3)
이 라 크						3,459 (1.8)
其 他	6,991 (4.2)	6,797 (3.7)	3,845 (2.1)	3,047 (1.7)	3,168 (1.8)	28,382 (14.6)
(아 시 아)		1,168 (0.6)	3,471 (1.9)	9,790 (5.4)	22,406 (12.6)	26,301 (13.6)
인 도 네 시 아		1,168 (0.6)	3,205 (1.8)	7,489 (4.1)	15,552 (8.7)	8,788 (4.6)
말 레 이 지 아				2,301 (1.3)	2,469 (1.4)	9,487 (4.9)
브 루 네 이					4,385 (2.5)	8,026 (4.1)
其 他			266 (0.1)			—
(中 南 美)			1,333 (0.7)	10,349 (5.7)	14,486 (8.1)	11,734 (6.1)
멕 시 코				1,752 (1.0)	4,677 (2.6)	4,068 (2.1)
베 네 수 엘 라			671 (0.4)	1,986 (1.1)	686 (0.4)	—
에 콰 도 르			662 (0.3)	6,611 (3.6)	9,123 (5.1)	7,666 (4.0)
(아 프 리 카)				1,467 (0.8)	6,415 (3.6)	12,053 (6.3)
리 비 아				1,154 (0.6)	5,868 (3.3)	9,033 (4.7)
이 집 트					547 (0.3)	3,020 (1.6)
其 他				313 (0.2)		
合 計	166,532	185,513	182,861	182,816	178,369	192,969

〈資料〉 大韓石油協会, 「石油協会報」, 1984. 2.

기 위한 対産油国 외교의 강화를 들 수 있다.[5]

둘째, 美, 日 등 우방국으로부터 戦略備蓄石油나 緊急融通石油의 일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일이다.[6]

그러나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는 에너지節約技術의 개발 및 이의 보급 실천으로 石油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国際石油市場에 관한 치밀한 情報蒐集과 분석으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専門人力의 양성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

註：5) 増産이 가능한 産油國 가운데 우리나라가 輸入하기에 용이한 나라로는 사우디와 中南美 및 東南아시아 産油國들을 들 수 있음.

註：6) 韓美協約이나 레이건大統領 訪韓時에 발표된 共同聲明에 兩國이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나라위해 바친 희생
한맘으로 보답하자